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8.(목) 14:00 < 1. 9.(금) 조간 > 배포 2026. 1. 8.(목)

20여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점검...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

- 총 4회에 걸쳐 업무보고 진행, 핵심과제 이행계획 등 집중 논의 -
-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 역할과 경영혁신 당부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8(목) ~ 1.12(월)일간 20여개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시각에서 신뢰받고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정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받으며, 차관 및 실장을 비롯해 소관 국·과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유관기관 임직원들도 참석하여 핵심 현안 등에 대해 치열하게 토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안전관리와 대국민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등 국민주권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미흡사항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8(목)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1회차 업무보고(14:00-16:30)는 가스(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및 원전수출(한전, 한수원) 분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가스 분야의 경우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 지원, ▲AI 활용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원전수출 분야는 ▲베트남, 체코 등 중점 국가들과의 협력과 ▲UAE와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1.9(금)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회차 업무보고(09:20-11:40)는 무역안보·표준 분야 공공기관(무역안보관리원, 산업기술시험원, 제품안전관리원) 및 주요 유관기관(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각 기관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대응 및 불법수출 차단, ▲첨단산업의 시험인증 역량 확보,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역량 강화, ▲AI 신뢰성 인증 개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작년에는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면, 올해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성과를 창출할 차례”라며,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팀으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1.12(월)일 대한상의에서는 3회차, 4회차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3회차(09:00-11:30)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산업분야’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RE100산단 등 지역 성장과 제조업 AX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뒤이어 같은날 진행되는 4회차(13:30-16:00)는 K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 자원분야 공공기관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4회차에서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개선,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 2년 연속 수출 7,000억불 이상 달성 방안 등 자원안보 및 경제활성화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 3, 4회차는 1.12일 별도 보도자료 배포(4회차 업무보고 생중계 예정)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임채욱 (044-203-5530)
		담당자	서기관	윤삼희 (044-203-5533)
			사무관	박현태 (044-203-5537)
			사무관	김재민 (044-203-55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개요

□ 추진배경

○ **'26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소관 공공·유관기관 대면 업무보고 추진

□ 보고계획

① **1회차 : 가스·원전수출 분야(5개 기관)**

- **(일시/장소)** '26.1.8(목) 14:00 ~ 16:30 / 무역보험공사
- **(참석대상)**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 한수원

② **2회차 : 무역안보·표준 분야 (6개 기관)**

- **(일시/장소)** '26.1.9(금) 09:20 ~ 11:40 / 무역보험공사
- **(참석대상)** 무역안보관리원, 제품안전관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생산성본부

③ **3회차 : 산업 분야 (7개 기관)**

- **(일시/장소)** '26.1.12(월) 09:00 ~ 11:30 / 대한상의
- **(참석대상)**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 탄소산업진흥원,

④ **4회차 : 자원·수출 분야(7개 기관)** ※ 생중계

- **(일시/장소)** '26.1.12(월) 13:30 ~ 16:00 / 대한상의
- **(참석대상)**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석유관리원, 석탄공사,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 각 기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의 상세이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참석인원은 기관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5~10인 참석**

* 산업부 소관 실·국·과장 및 담당자 배석

참고 2 공공기관별 주요 업무보고 내용(가스 및 원전수출 분야)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AI혁신, 에너지 수급 안정화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안전·생산·공급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활용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가스 수요 예측 및 설비 운영 최적화를 구현함으로써 경영 전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25년 미국산 LNG확보에 이어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27년 당진LNG기지 저장시설 4기 완공 등 주요 인프라를 적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LNG냉열에 대해서는 인천기지를 시작으로 냉열활용 사업을 전 생산기지로 확대 시행 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는 그간 사업장 전반의 위험을 식별·통제하는 종합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대응 시간을 단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역 기업지원 규모를 '24년 371억원에서 지난해 409억원까지 확대하고, 약 1,800억원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불어 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신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약 12,000가구의 신규 수혜자를 발굴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026년은 공사가 에너지 안보를 넘어 AI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AI 기반 현장 안전관리 혁신과 LNG·수소 관련 기술 솔루션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를 통해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AI 활용을 통한 사업 내실화 및 기관 체질 개선, ▲정비사업 안전 확보 및 사업역량 강화, ▲에너지 사업 생산성 향상을 주요한 3가지 중점과제로 발표했다.

우선 AI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작업허가 및 위험요인 분석 등을 통한 위험요인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또한, GPU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및 AI 챗봇을 활용한 인력운영 및 사업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 경영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업무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사업에서는 당진 신규 LNG기지의 철저한 개소 준비와 기존 14개 지사가 수행하는 경상정비 역량 고도화·생산성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한 수소사업 분야에서는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 인프라(수소 생산기지, 수소 충전소,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등) 운영 등을 통해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강화·AI전환·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대국민 소통 등 ESG 경영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설립목적인 국민안전과 가스안전산업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를 위해 50년 넘게 축적된 가스사고 데이터베이스와 시설정보를 연계하여 AI 기반의 가스사고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2026년부터 3년간 지능형 가스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가스시설 원격관리를 통한 실시간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안전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형 가스안전 신산업 육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청청 그린수소와 관련된 수전해설비 대형화 등에 대응한 수소안전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활용(CCUS)기술 보급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현장 중심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산재예방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77명에서 16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고위험 업무 수행직원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모 등 최신 안전장비를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소외 청소년 지원사업, 이전지역 문화콘서트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소통도 강화된다. 연간 30만 콜에 달하는 가스안전 관련 문의를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안전고객센터 보이스봇 AI상담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사용자가 가스안전의식을 갖고 사고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을 활용한 SNS 홍보, 전국 4885개 캠핑장 대상 현장 캠페인 등 입체적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전력공사 (원전수출)

한전은 2026년 중점 추진과제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전략 전개, 한전-ENEC(UAE 바라카 원전 발주처) 간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한-UAE간 원전사업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베트남, 튀르키예, UAE(후속 호기 등) 등 중점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韓-UAE간 정상회담('25.11) 계기로 체결된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파트너십 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UAE와 공동으로 원전 운영분야의 新사업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

한수원은 신규 해외원전 시장 개척과 사업 내실화 등을 축으로 2026년 원전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 루마니아 등을 사업 중점국으로 설정하고, 현지 협력 강화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신규 수주 기회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체코 두코바니, 이집트 엘다바(Turbine Island),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사업 등 주요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사업의 초기 역무를 완벽하게 이행하여 향후 테믈린 3,4호기 등 추가 수주를 위한 신뢰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참고 3 공공기관별 주요 업무보고 내용(무역안보 및 표준 분야)

□ 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은 ▲주요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 전략물자·기술 해외유출 차단 강화, ▲기업 및 연구기관 등 무역안보 이행 지원 등 주요 3가지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주요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수출통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서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요한 전략물자와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 국정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의 방식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관 시 허가받지 않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차단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 합병 등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국가안보상에 중요한 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략기술의 선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체 과정에 걸쳐 안보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자가판정서 부실 여부·고의성 조사를 통해 선별된 기업 대상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 내역 분석 및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26.上)

마지막으로 무역안보 제도에 대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등 5극 3특 지역별로 특성화된 주요 산업의 품목군을 조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명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무역안보 제도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은 “안보원은 경제안보를 위한 K-산업방파제로서 전략물자·기술 해외유출 차단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 지원과 투명한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현장의 AI 도입 촉진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에 AI표준 전문기관으로 참여하여 업종별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충남 아산에 산업AI 적합성 평가 인프라를 ’27년까지 구축(총 사업비 256억원)하여 AI 기술·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 집적지인 경북 구미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 인프라를 ’28년까지 구축(총 사업비 471억원)하여 관련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시험인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을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정보시스템(www.certinfo.kr)을 통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해외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MOU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경남 진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00여억원을 투자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물품·용역 구매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험원은 앞으로도 경상남도의 특화산업인 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수준의 위성 및 관련부품 시험시설을 ’28년까지 진주에 구축(총 사업비 1,362억원)하는 등 이전지역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국민의 제품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KC미인증 불법제품 유통감시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교육청, 조달청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오프라인 시장의 불법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온라인쇼핑몰 협의체와 모니터링단이 협업하여 중고거래 전문몰 등 신규 온라인 유통채널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실시 28회('26.12월) / 온라인 협의체 확대 및 교육 실시 : '26.2분기

또한, 관리원은 취약한 정보보안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업무시스템을 통합하는 ‘제품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안전인공지능혁신TF’를 구성·운영하여 AI기술을 활용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다.

* '24년 제품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소요예산: 18억원/수행기간: '26.5월~12월)

관리원은 ‘22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Zero 달성, ▲자원봉사활동과 취약계층 대상 교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했다.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는 ▲제조 AI 대전환(M.AX), ▲산업재편·ESG·탄소중립 지원, ▲AI·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뒷받침한다.

제조 AI 전환(M.AX)을 위해 AI 표준화–진단–컨설팅–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단계별 AI 도입 수준에 맞춘 제조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AI 인재 양성과 현장 연계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AI 전문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재편·ESG·탄소중립 등 산업 구조 전환 분야에서는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급망 ESG 대응과 대·중소기업 간 탄소중립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AX 인재 양성과 AI 활용·디지털 윤리 자격 확산을 통해 산업 전반의 AI 활용 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

아울러 지역균형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역량센터를 신설하고, 청년·외국인 대상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가생산성 통계와 기업 생산성 진단·인증 체계를 디지털화·고도화하고, 국가고객만족도지수(NCSI)와 브랜드경쟁력지수(NBCI)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제조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국가 생산성 혁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는 국내 기업의 산업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신뢰성 인증 개발, ▲첨단기술 표준 선점, ▲탄소중립·ESG 경영 검증 고도화를 주요한 3가지 중점과제로 발표했다.

우선 AI 신뢰성 인증 개발을 통한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AI 제품 품질인증(“AI+” 인증)과 경영시스템 인증(ISO/IEC 42001)을 도입한 협회는 나아가 국내외 AI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위해 ‘AI 신뢰성 인증’을 상반기 내 제공하여 AI 기술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양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미래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의 표준화(국제표준 NP제안 6건)를 통해 우리 첨단기술의 글로벌 표준 선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표준 선점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로 'ISO 14068-1(기후변화 관리-넷제로)' 기반의 탄소중립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 주력 산업을 지원한다. ’26년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 등록으로 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비용 및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민 회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표준, 인증, 품질, 교육”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탄소중립 전환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26년 중점추진과제로 ▲국가핵심기술 보호·관리체계 고도화, ▲기술보호 취약기관의 보안역량 강화 지원 확대, ▲기술보호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보호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 ’26년 산업부 소관 사업 총예산 : 31.72억원

우선,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현장 실태조사시 기술유출 발생기업, 해외투자 확대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교육,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이 취약점을 보완할 때까지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 기술수출 업종·유형별 보안 가이드라인을 ’26년 상반기 내에 개발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기술유출 위험도 유형화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보호역량이 취약한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협력업체를 보안컨설팅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여 4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新보안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기업이 기술유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산업보안 트렌드에 발맞추어 융합형 보안전문가(연60명 수준)를 양성하고 기술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우수 기술보호 모델의 타 지역 확대 적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협회는 방화벽 이중화, 별도 서버 구축, 모의해킹 훈련 등을 통해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시설점검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대상 현장 간담회,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중이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기술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다.